“괴태곶봉수대를 시민의 품으로”

평택 수도사, 시민단체 집회
“봉수대 개방–수도사지 복원”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제안

유재상 충청지사장



수도사와 괴태곶봉수대 되찾기 · 안전대책시민운동본부는 5월 22일 해군2함대 정문 앞에서 시민 150여 명과 함께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괴태곶봉수대는 단지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신심이 오가고 역사가 깃든, 수행과 호국의 정신이 함께 살아 숨 쉬는 도량입니다.”

평택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괴태곶봉수대 되찾기·안전대책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이 또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30년 넘게 철책 안에 묶인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괴태곶봉수대와 수도사지(修道寺址) 개방을 촉구하며, 문화유산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행보에 수년째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괴태곶봉수대는 1986년 3월 평택시 향토사적 제1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1990년대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강제 이주하고, 해당 지역이 해군2함대 경계선 안에 편입되면서 현재까지 민간인의 접근이 전면 차단된 상태다. 수도사지 역시 함께 고립돼 신심과 역사 전승의 맥이 끊겼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수도사와 괴태곶봉수대 되찾기·안전대책시민운동본부는 5월 22일 해군2함대 정문 앞에서 시민 150여 명과 함께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문화유산을 민간에 개방하라’는 요구와 함께 결의문 채택, 성명 발표, 기자회견으로 이어졌다.

이날 적문 스님은 “괴태곶봉수대는 옛 수도사와 한 맥을 이루며 수행과 호국의 정신이 스며든 귀중한 공간”이라며 “단절된 신심의 길을 잇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하루속히 전면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공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약속과 신뢰의 문제”라며 “종교는 신심을 위한 것이고 군은 국민을 지키는 조직인 만큼, 그 벽을 허물고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회는 단발성 시위가 아니라 적문 스님이 수년간 이어온 문화유산 개방 요구의 연장선에 있다. 적문 스님은 수도사 경내 수도사지 복원과 괴태곶봉수대를 연계한 역사 문화 교육 공간 조성을 제안하고, 2024년부터는 본격적인 시민 연대 활동을 통해 여론 확산에 앞장서 왔다.

이날 규탄사에 나선 원정리와 도곡리 이장들도 지역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군 당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형철 원정7리 이장은 “제주 강정마을과 매향리 사례에서 보듯, 군과 주민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많다”며 “더 이상의 침묵은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괴태곶봉수대 전면 개방 △수도사지 복원 △민군 복합문화 활용 △시민 접근권 보장 등을 촉구했으며, 해군2함대 사령관의 무성의한 대응에 대한 공식 사과도 함께 요구했다.

시민단체 측은 “DMZ조차 안보관광지로 전환되는 시대에, 향토사적인 봉수대가 군사경계선 안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방부의 유연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금강경 10폭 병풍’ 동도선사 장엄하다

허원 정덕영 서예가
순수 발심으로 기증
“서예로 불심 증장”


동도선사 대법당에 봉안된 ‘금강경 10폭 병풍’ 앞에 선 도권 스님과 정덕영 서예가.

도선사 원주포교당 동도선사(주지 도권 스님) 대법당이 ‘금강반야바라밀경’ 10폭 병풍으로 장엄돼 불자들과 지역사회에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다.

병풍은 서예가 허원 정덕영 선생이 최근 서울 한국미술관에서 개최한 개인전에서 선보인 후 5월 20일 동도선사에 기증한 것이다. 불교 경전 중에서도 공(空)의 가르침을 핵심으로 하는 〈금강경〉을 서예로 옮긴 작품으로, 작가의 정밀한 필력과 오랜 수행적 정신이 깃든 대작이다. 기획부터 완성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 이 작품은 그 자체로 수행과 예술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허원 선생이 개발한 ‘호태왕비 예서체’로 완성되어 그 가치를 더했다.

정덕영 서예가는 지난해 동도선사 개원식에 참석하며 도권 스님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동도선사 부속시설인 ‘향상화 문화교실’에서 서예를 지도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이러한 인연이 병풍 기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동도선사 주지 도권 스님은 “귀한 인연으로 대가의 작품이 우리 대법당에 장엄되어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병풍은 도량의 기운을 바로 세우는 법보(法寶)로서 모든 이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보존을 위해 보강 작업은 물론 ‘〈금강경〉 독송’ 신행회를 결성해 경전의 메아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덕영 서예가는 “이 작품이 동도선사 대법당에 봉안된 것은 큰 영광”이라며 “서예와 불법이 하나 되어 많은 이들의 불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 “앞으로 〈금강경〉을 장엄하고자 하는 스님들과도 새로운 인연으로 불법 홍포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덧붙였다.

동도선사는 삼각산 도선사의 분원으로 2024년 10월 23일 원주혁신도시에 향상화 보살의 희사로 개원했다. 부속공간인 ‘향상화 문화교실’은 대중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며, 2025년 개원 1주년을 맞아 ‘동도선사 문화교실’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허원 정덕영 서예가는 강원서학회 소속의 원로작가로, 원주 한라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에 출강했고 현재도 서울과 강원을 오가며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횡성 대법사 불상 후면에 순금으로 작업한 작품 ‘금강경’을 봉안해 주목받은 바 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성남 봉국사, 지역 청년포교 거점 ‘우뚝’

가천대 · 신구대 불교동아리 지도 · 신행활동

수계식 · 연합법회 등 진행
동아리 회원 비약적 증가


5월 28일 성남 봉국사서 봉행된 가천대 불교동아리 수계식.

성남 봉국사(주지 혜원 스님)가 활발한 전법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불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포교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도심 전법 도량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봉국사는 5월 28일 경내 무량광전에서 가천대 불교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봉행했다. 법회에 참여한 50여 명의 대학생들은 “나는 불자다”라고 외치며 부처님 제자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주지 혜원 스님은 “도심 속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과 인연이 있다면, 청년 불자도 얼마든지 자랄 수 있다”며 “앞으로 성남 시민은 물론이고 청년세대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전법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봉국사는 최근 캠퍼스 안팎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법회와 체험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가천대 ‘들이붓다’, 신구대 ‘불똥별’ 등 인근 대학 불교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지도와 연계 활동도 꾸준히 성장 중이다.

봉국사 총무 홍인 스님은 지난해부터 직접 동아리 지도법사(가천대·신구대)를 맡아 청년 포교를 이끌고 있다. 가천대 불교동아리 ‘들이붓다’는 창설 1년 만에 137명의 회원을 확보했고, 신구대 불교동아리 ‘불똥별’ 역시 187명의 회원을 기록하며 캠퍼스 내 불교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

법회는 캠퍼스뿐 아니라 봉국사 경내에서도 정기적으로 열린다. 염주 만들기, 명상 법회, 불교 교리 스터디, 연등 만들기, 봉축 법회 등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 전법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5월 한 달 동안 봉국사는 총 5차례의 대학생 법회와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청년 포교의 중심축으로 기능했다. 5월 13일 신구대 동아리 정기법회를 시작으로, 16일에는 가천대·단국대·동덕여대 동아리 연합법회가 봉행됐다. 이어 17·18일에는 가천대 해인사 템플스테이, 24·25일에는 신구대 법륜사 템플스테이가 잇달아 열렸다.

한편, 봉국사는 매년 봄과 가을 두 학기에 걸쳐 불교대학을 개설, 기수당 40~50명의 신입생을 꾸준히 유치하는 한편 올해만도 13명의 예비 포교사를 양성해 교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 내 법당 운영, 지역 경찰서 법회 봉행, 공무원불자회 후원 등 공공영역과의 협업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어린이 대상 사찰문화 체험프로그램도 매주 토요일 열리며,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포교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화엄사 ‘연화–구도적 예술가’ 기획전

7월 27일까지 성보박물관 등서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6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성보박물관과 보제루 일대에서 특별기획전 ‘연화(蓮華)-구도적 예술가’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교의 상징인 연꽃을 현대 예술로 확장해 표현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도자적 삶을 살아온 예술가 5인의 깊은 내면세계를 선보인다. 오프닝 행사는 7월 3일 오후 3시 보제루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아방가르드 무용가이자 명상가, 교육자로 활동해 온 홍신자 작가를 비롯해 신은주, 이상용, 김도희, 강석호 작가 등이 참여한다. 각기 다른 매체와 예술 언어로 ‘피어남’의 과정을 형상화한 이들은 불교적 사유를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엄사 성보박물관 및 보제루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사, 일각 대종사 29주기 추모재

6월 3일 대웅보전서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6월 3일 대웅보전에서 ‘회광당 일각 대종사 제29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 스님의 수행 정신과 가르침을 기렸다.〈사진〉

이날 다례재에는 방장 현묵 스님을 비롯해 유나 범종 스님, 회주 영진 스님, 쌍봉사 회주 영조 스님,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 전 주지 현지·진화 스님, 선원장 영선 스님, 중앙종회의원 일화·시공 스님 등 송광사 문도 스님과 신도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문도 대표로 나선 계성 스님은 “스님께서 ‘계성아 정신 차려라’ 하시던 말씀이 오늘 아침 발우를 씻던 순간처럼 생생하다”며 “내년이면 벌써 30년이 되는데, 오늘까지도 기억하고 함께해주시는 대중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림사, 탄성 대종사 25주기 추모재

6월 1일 대웅전서



괴산 공림사(주지 원호 스님)는 94년 종단개혁의 선봉장이었던 진공당 탄성 대종사의 25주기 추모 다례재를 6월 1일 봉행했다.〈사진〉

법주사 선덕 함주 스님은 추모사에서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공림사는 그 뜻을 이어 정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내소사, 혜산 스님 20주기 추모재

6월 1일 경내 대웅보전서



전북 지역 대표적인 선지식이자 내소사 중창주 우암당 혜산 스님의 20주기 추모재가 6월 1일 내소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됐다.〈사진〉

주지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스님의 20주기를 맞아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께 감사 드린다”며 “늘 엄격하고 자애로운 스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더욱 수행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서산 서광사, 제16회 산사음악회

5월 31일 특설무대서



서산 서광사(주지 도선 스님)는 5월 31일 경내 특설무대 ‘제16회 서광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음악회 1부에서는 서광사유치원 합창단, 서광풍비니합창단, 국악인 강리연·안종미·최정선이 무대를 선보였고, 2부에서는 김유라·박강성·정서주·김수찬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호응을 얻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정읍 내장사 ‘2025 용왕재’ 봉행

5월 31일부터 3일간



정읍 내장사(주지 대원 스님)는 단오를 맞은 5월 31일 3일간 이어진 용왕기도를 회향하는 ‘2025년 내장사 용왕재’를 봉행했다.

내장사 총도감 무성 스님은 “3일간의 지극한 기도 공덕은 모두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회향될 것”이라며 “공덕을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나누는 보살도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